2020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가이드북

청년들의 삶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청년주거

2020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가이드북

청년들의 삶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5

청년주거

행정안전부 |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청년들의 삶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청년주거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던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줍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이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낳을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밑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는 글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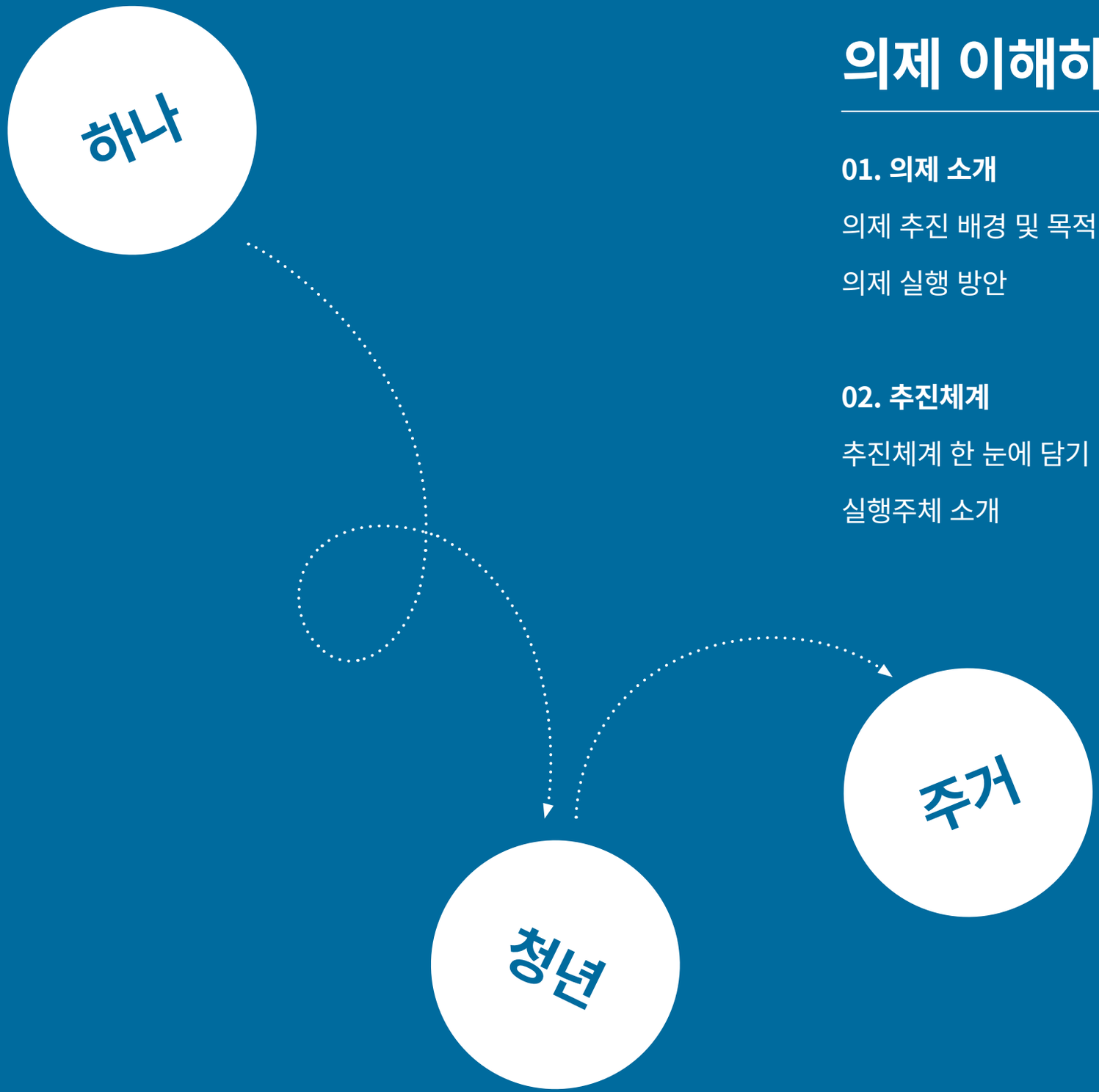
03. 의제 실행 51P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63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65P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9P

실행주체 소개 20P

01 의제소개

청년들의 삶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청년주거

지낼 곳 없는 청년들, 약해지는 공동체의식

더욱 바빠지고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개해드릴 사회문제는 바로 '주거난과 약화된 공동체의식'입니다.
현재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들을 수용할 주거공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값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숙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원룸과 투룸 등의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어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 층간소음, 반려동물 관련 갈등과 같은 문제로 말이죠.

대구청년들은 어디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으며 또한 지방지역인 대구의 경우, 청년들의 인구유출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청년들의 비율이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는 장년층과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비슷하다는 특성을 띄며, 2017년 기준, 245만 인구 및 96만 가구가 거주, 1만2천의 인구유출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2019년에는 243만 인구 및 98만가구와 2만4천의 인구유출이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를 해석하여 볼 때, 청년의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일부 남아있는 청년들은 1인가구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변신, 청년과 마을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공동주택

이러한 배경과 문제점을 인지한 대구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도농공간활성관리소 및 대구지역문제플랫폼은 2019년부터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다가구주택 등으로 약화된 청년들의 공동체의식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대구만의 새로운 청년 주거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 다세대 주택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주된 개요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딩을 통하여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며, 공동주택 거주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을 지향합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 중, 더 일관된 방향과 확실한 업무추진을 위해, 창업공간지원을 포함했던 기존의제에서, 갈래를 나눠 2020년 청년주거의제로 새 출발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졌던 활동 및 성과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관계자간의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포럼 및 2020대구사회혁신컨퍼런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논의를 위하여 5차례의 협업테이블이 주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의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더욱 더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와 공동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의제실행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제 실행 방안

1. 적은 임대료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거 실험

2. 청년주거실험을 통한 지역의 청년커뮤니티 형성

- 각 층당 1개 호실을 비워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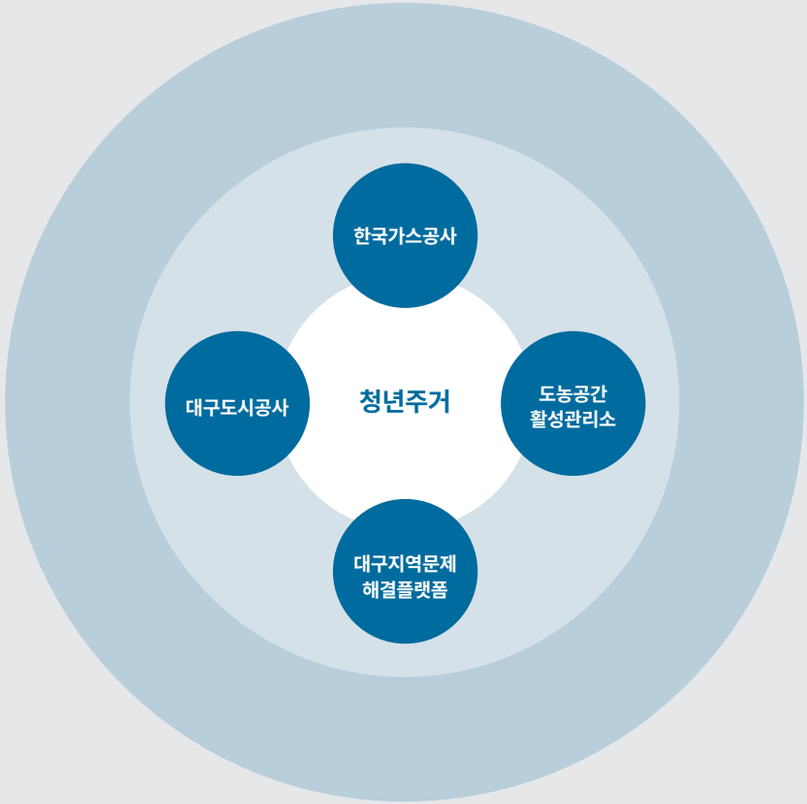
: a.공유주방 b.공유서재/협업공간/소모임공간 c.취향공유관/영화관

- 입주자 중에서 공간운영단을 선발하여 일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공간운영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기회 제공

: 해당인원을 컨트롤하고 전체 운영을 책임질 담당자 필요

3.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청년 1인 주거권에 대한 제도개선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비 고
1	한국가스공사	의제 실행 기획	공간 조성
2	대구도시공사	의제 실행 자원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북9길 6-4)
3	도농공간활성관리소	의제 실행 기획 및 운영	공간 조성
4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관 연계 및 의제 실행 지원	

실행 주체 소개

1 한국가스공사

설립목적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비전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선도 공기업

주요사업

- 주거복지
  -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 주택건설
  - 공용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 용지조성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 도시개발사업, 스마트도시사업

2 대구도시공사

설립목적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

비전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주요사업

-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 ☒천연가스의 개발, 수송 및 수출입
-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및 부대사업

3 도농공간활성관리소

설립목적

우리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사는 환경에 맞춤형으로 '치유공간 설계서'와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고객의 행복을 위해 '친환경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전

도시와 농촌에 있는 유휴자원 활용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주요사업

- ☒조사/분석
- ☒공공공간조성(HW)
- ☒주민역량강화(SW)

4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설립목적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공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함

비전

지역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 풀어갑니다.

주요사업

- ☒온·오프라인 과제 발굴
- ☒의제실행지원 : 과제심화·자원연계
- ☒의제협업주체 역량강화도모
- ☒홍보채널운영 : 지역문제해결과정 홍보 및 인식확산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03. 의제 실행 51P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19-20 연속 의제 점검

1단계

1월 17일

19년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2월 5일

1차 집행위원회

모니터링 공유

실행의제 검토 및 선정

2단계

6월 11일

2차 집행위원회

6월 26일

1차 협업테이블

대구도시공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더컴퍼니씨협동조합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3단계

8월 27일

온라인 "청년" 의제 포럼

발제: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 조영태(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조각래(대구도시공사), 한가영(한국가스공사)

안경성(청춘꿈공작소), 임광순(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조수룡(대구거주청년)

8월 27일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참여: 대구청년네트워크, 대구시 청년정책과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 더컴퍼니씨협동조합

10월 20일

2차 협업테이블

도농공간활성관리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5일

3차 협업테이블

대구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1월 6일

4차 협업테이블

도농공간활성관리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2월 11일

5차 협업테이블

공감씨즈

도농공간활성관리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년도 청년주거 의제 모니터링

개요	일시 : 2020년 1월 7일(화) 14:30 진행 : 혁신공간 '바람' (중구 중앙대로 402, 3층)	
참여자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노동욱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진행현황 점검

- 2019년 혁신포럼 전 1회, 포럼이후 1회 의제테이블을 진행

2020년 활동계획

- 협업테이블 운영예정
- 이해관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 중
- 지역의 당사자 욕구 조사(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이 필요한가?)가 필요하고, 수도권의 청년주거의제나 지역의 청년주거의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공론화하는 자리 마련 계획

피드백 및 건의사항

-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결과물의 온도 차이를 느꼈으며 좀 더 공급자 중심의 해결방안과 현안파악이 중요하다 느낌
- 주체별로 도달하고자하는 목표치가 달라서 조율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의제실행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음
- 사업비의 집행시기가 더 빨라지면 좋겠음
-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실행해볼수 있는 사업비의 책정이 필요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년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회 1차

개요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10:30

장소 : 혁신공간 바람, 유스카페

참여자 : 12명

공동집행위원장	김진희 이창건
기존 집행위원	김영숙 박승미 박진영
	석숙희 윤종화 전충훈
	조각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이재찬 손정아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사업추진현황**

- 2019년 선정의제 모니터링 내용공유
- 의제 실행 가이드북 제작 내용 공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년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회 2차

개요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14:00	
	장소 : 혁신공간 바람, 상상홀	
참여자 : 18명	공동집행위원장	송기찬 심은정 이창건
	신규 집행위원	공정옥 김영숙 박승미
		석숙희 오용석 오창식
		박근식 이성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전국운영위원장	윤종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이재찬 손정아
		권준열 이혜민
참관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유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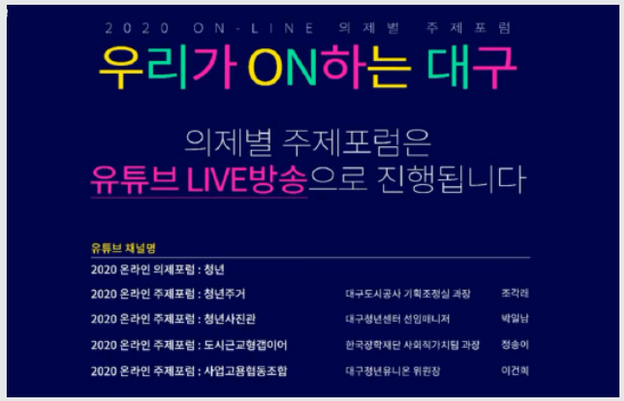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2020년 실행의제 검토 및 신규 의제선정**

- 실행의제 / 발굴(선정 후보)의제 리스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청년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 16:00~18: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 6명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과장
	한국가스공사	한가영 주임
	청춘꿈공작소	안경성 차장
	대구거주 청년	조수룡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임광순 매니저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조영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선임매니저
기록자		이지환 매니저

발언기록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오늘 청년 주거 의제 진행을 맡게 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이재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에서는 청년주거의제를 다루고 앞서서도 전체 발제로 조영태 대구 청년분과 또 대구시 청년정책과의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또 가장 큰 청년 문제의 두 가지가 일자리와 주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특히 대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가면 좋을지 오늘 논의를 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청년들에게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계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 측에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대구에 청년 주거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대구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대구도시공사에 조각래 과장님 모시고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래 과장
대구도시공사

안녕하세요.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조각래 과장입니다. 전부 다 같이 얼굴 뵙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화상으로 남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데도 플랫폼 측에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발제를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단 청년 주거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잠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이제 일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이가 있는지 정도까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참여하신 분들의 또 많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정책으로 공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청년 행복주택 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크게 두 가지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 정책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청년 정책 분야

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청년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주택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대구 전체적으로 733호 정도 공급 예정에 있고 밑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수성알파시티, 서구미래비지니스 발전소, 안심뉴타운과 같은 곳에서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8%에서 8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안심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년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구형으로 특화된 청년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도 많이 받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매입임대사업 인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니고 잘 아시는 원룸이라든지 투룸 형태의 건물 등 기존의 지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변 시세에 30% 에서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대상은 수급가구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리고 주거지원시급 가구,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고, 월평균 소득은 일정 조건이하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 같은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특화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년에 한 50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구요. 저희도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입한 주택대비, 공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소하고 싶은 그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가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는 전체적으로 약 944,000가구 정도가 2017년 기준으로 있는데 2047년까지 934,000가구 한 1만 가구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유출이 있는 편인 것 같구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구 수 증가율이 많이 낮은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47년까지 반면에 1인가구의 비중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대비 대구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27.3% 에서 36.8% 까지 1인가구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비중이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늘어나는데 청년 가구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가 확인됐는데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

가구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2019년도 숫자를 보시면 39세 이하를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가구가 60세 이상이나 40세에서 59세를 포함하는 장년 인구보다 비율이 좀 작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국이나 서울자료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6%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역시 고령 인구 대비 청년층이, 청년 1인가구가 많은 추세입니다.

근데 2047년까지 점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1인 가구 35세 이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구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장년층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데요. 이거는 뭐 출산율 감소라던지,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비슷한 광경이 보이고, 대구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1인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구의 유출이 있긴 하지만 현재 17년 대비 19년에 한 2-3천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가구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가구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틀에 짜여져있는 저희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입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공간이나 미니멀리즘 같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소유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공유하고 싶어 하면서 또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성향 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 대비 낮은 청년가구 비중은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서 아까 앞쪽에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대구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거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구요.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을 좀 서로 연계를 시켜서 정책 연계 주거지원 방안이라던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체들이 좀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구요. 나머지는 각자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나눠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도시공사의 조각래 과장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청년주거문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타 지역 대비해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주거정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과 다양한 정책들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작년 주거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볼텐데 한국가스공사의 한가영님을 모시고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청년주거문제 해결방향이라든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영 주임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의 한가영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도에 대구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또한 대구지역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도 2018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주거의제를 이제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은 다양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청년들과의 사회적 교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커뮤니티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사업을 구체화시켜야하는 부분이지만, 공유공간 리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에 도움을 주고, 관련 활동 중인 청년 단체를 입주시켜 교류하며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가스공사는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참여를 해오시고 있고, 올해는 한국가스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거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의견을 나눠야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주거의제로는 2019년에도 프로젝트를 실험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작년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청춘꿈공작소 협동조합의 안경성 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로 청년주거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했었는지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인상이 깊었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경성 차장
청춘꿈공작소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꿈공작소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경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청년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작년에 저희 같은 실험은 '구해 줘, 청년 홈즈' 라고 해서 주거를 공유했던 실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공유를 실험했던 이유는, 청년 주거의 현실을 보면 아까도 나왔던 캥거루족이라 일컫는 집단이 약 60% 가량 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또 이제 원룸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천만 원에서 7천만 원정도 되는 금액을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제 빈곤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건강문제 또 위험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0대가 3.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청년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았던 거고 또 독립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지원되면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 보면 '풀꽃'이라는 단체에게 투룸 2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공모를 통해서 남자 3명 여자 3명을 선정하고 5개월 정도를 함께 거주하면서 삶과 물건, 공간을 공유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청년들 사이에 어떤 역동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고 싶었

고 또 그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 활동들 중 주거를 공유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탐방도 하고, 책을 같이 읽으면서 스터디도 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를 제가 들었을 때는, 평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했던 활동은 단기간 동안의 실험이었지만 플랫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고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청년주거라는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발제 감사드립니다. 작년의 저도 이 프로젝트 청춘꿈공작소에서 운영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어쨌든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그 청년들이 독립을 해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공유 주거생활 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좀 아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어지면서 청년주거에 다양한 현장에서 실험들이 올해도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유주거에 직접 참여하셨던 두 분을 회의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아쉽고, 또 앞으로의 공유주거나 청년주거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먼저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수룡님께 작년에 대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수룡

대구거주 청년

‘구해줘, 청년 홈즈’에 참여했던 조수룡이라고 하고요. 그때 참여를 했던 이유는 제가 북구 칠곡 강북쪽에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 한번 또 이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해서, 1번쯤은 밖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 밖에서 살아보게 됐는데, 같이 살면서 깨달았던 거나 느꼈던 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2개정도를 얘기하자면, 이사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일거에요. 1-2주 정도 됐을 땐데 공간 앞으로 산이 있고 창문이 되게 크게 나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그 창문 앞에 앉아서

밤에 와플이랑 음료수를 두고 앉아서 이제 바람이 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도 바람이 시원하더라구요. 본가에 살 때는 저녁에 그렇게 시원하다는 감각을 많이 느끼지 못했거든요. 여름에도 너무 시원하고 그 공기라든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인데도 뭔가 되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잠깐이지만 혼자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원래 물건을 조금 대량으로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4인 가족이 다 보니까, 쌀을 사도 무조건 20kg, 물을 사도 무조건 뭐 30병씩 이렇게 샀는데 거기선 이제 세 명이서 나눠 쓰다보니까 쌀도 한 2kg? 5kg? 이렇게 사게 되고 물도 한번에 6병정도 사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버릇으로 많이 샀던 것들이 남아버려서 중간 중간 버리기도 하고,, 또 물론 독립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청년들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글을 써서 마지막에 저희 활동 보고할 때 그 활동 결과를 보고서에 쓰기도 했어요. 가족하고 사는 것도 좋다고 분명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혼자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는 데에는 주거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새 내 집 마련 한다는 게 정말로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우리 정부에도 대구에도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제 친구들도 또 우리 대구시에 있는 청년들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고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조수룡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작년에 청년 공유 주거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임광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당사자로서 그리고 지금 이번 손님은 또 청년 센터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경험과 앞으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실 텐데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어떻게 개선되고 어떠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광순이라고 하구요. 그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활동그래'라는 곳과 녹음과 활동지원 팀은 청년들의 단어 그대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있으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동아리적인 활동들, 그리고 '딴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도 있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단 뭐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조수룡님이 혼자 와플을 먹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따로 풀도록 하고 저도 공유공간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도 갔다 왔었고 다른 곳을 좀 옮겨 다니면서 집을 떠나는 상황이 많았다가 다시 대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물론 너무나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립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저에게는 의도치 않은 갇혀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대로 단기간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라는 것이 이제 단기간의 삶이 아닌데 진짜 내 삶과 집이라는 그런 안락한 공간의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숙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집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앞서 얘기해주셨던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라는 게 저희가 뭐 단순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외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좀 외지에 어떤 주거가 마련이 되어있다던가 또는 저희가 매입임대주택도 너무나 좋지만, 요즘엔 어떻게 본 1인 가구에 대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데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족 중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청년의 눈높이나 시간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참여함으로써 어떤 활동들을 꼭 해야 한다거나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공간과 커뮤니티로 것을 마련해줬을 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만들어 간다거나 그러한 공간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의 정책이나 지원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청년들이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가 확보 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그 와플사건은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직접 작년에 참여하셨던 경험으로 얘기해주시니까 더욱 세밀한 면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거자체가 단기간에 프로젝트성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간의 확보 그리고 자연스러운 커뮤니티형성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의 의견들은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요. 저희 포럼주제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는 그 매입임대주택 중에 '셰어하우스' 형태가 있는데 같이 지내는 동안 룸메이트와의 성격차이, 문제 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하나 있었구요. 두 번째 질문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절차가 청녀들이 느끼기에 좀 복잡하고 정보도 좀 찾아보기 어렵고 결과가 좀 늦게 난다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각래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각래 과장
대구도시공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셰어하우스와 같은 곳에서는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지 갈등이라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셰어 하우스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행해 셰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공동생활주택 아니면 특정 계층들 어떤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 형태 들이 있는데, 대구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없는 상황이구요. 아마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셰어하우스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호수 변경이라든지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두 번째, 임대주택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발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되는거죠. 임대주택이라는 성격도 있고 청년이라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또 특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자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자산이나 소득,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신청 받는 기간들을 충분히 줘야 되고 그럼 선정 이후에 또 계약에 필요한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청년들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임광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이런 지원들이 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려 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느껴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 붙게 마련이더라구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들은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공유 공간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지원에 따른 절차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가 되었고,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청년주거와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해주시고 계신데, 보충의견이나 공유하시고 싶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태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앞서 말씀해주신 매입임대주택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을 다녀야 하거나, 신혼부부이거나, 대학생이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맞춰야만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청년들도 정책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결론입니다. 평범한 청년들도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안에서는 청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대출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격요건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중위소득 120%이면 월 소득 200만 원 정도입니다. 고소득자는 아니더라도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에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찬 매니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 있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도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논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거관련 이외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의 입장을 제시해주실 수 있는 채널이신 것 같아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좀 더 청년들이 만족하는 프로젝트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정해진 시간에, 계획에 따라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말씀해주시실 분 있으실까요?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각래 과장
대구도시공사

그냥 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조수룡 선생님 얼굴은 안 보이신다만은 아까 뭐 목소리로 나마 참여해주셨고,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라디오 듣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조수룡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좀 다르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취업준비생,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어떤 그 주거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혼자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부분도 있고 청년이라면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이 당연히 독립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혼자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영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어떤 주거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 대구도시공사 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지금 이런 그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주체가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그런 곳에 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또 이제 지금 실행하는 주체들도 많이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요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5:15~15:55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퍼실리테이터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조영태
참여자 : 8명	대구시 청년정책과	김요한 과장
	대구경북연구원	조득환 박사
	대구거주 청년	조수룡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과장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임아현 이사
	한국가스공사	심은정 부장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강은경 대표
기록자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유정은 팀장

워크시트 내용

김요한 과장
대구시 청년정책과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에서
민•청•관 협업을 촉진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행정 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거정책은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획에서부터 고객을 참여시켜야 함. 현재 청년 주거정책 관련 금융지원, 물량공급정책 있으나 청년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존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도시재생과 등의 관련부서, 대구도시공사와 LH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유관기관, 대구경북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그리고 실 수요자인 청년들의 협업이 필요함.

조득환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공사 에서
매입임대주택이 청년주택으로 변화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매년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약 200호 가량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실률 높음.
- 특히나 원룸형 임대주택은 타 주거유형에 비해 더욱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청년들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변경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한 곳에 집중된 형태보다는 도심을 필두로 학교 주변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워크시트 내용

김요한 과장
대구시 청년정책과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에서
민•청•관 협업을 촉진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행정 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거정책은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획에서부터 고객을 참여시켜야 함. 현재 청년 주거정책 관련 금융지원, 물량공급정책 있으나 청년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존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도시재생과 등의 관련부서, 대구도시공사와 LH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유관기관, 대구경북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그리고 실 수요자인 청년들의 협업이 필요함.

조수룡
대구거주 청년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청정북소리 에서
청년공간연구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대구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을 위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음. ☒
- 특히 경북대학교 근처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나 그 공간이 협소하여 공동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마을 내에서 청년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조각래 과장
대구도시공사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도시공사 에서
유휴 공간활용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휴공간인 미공급된 주택, 상가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청년들의 주거 공간이나 청년주거를 위한 연구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함.
- 청년임대주택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해법을 찾고, 국토부 등의 상위기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공실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논의를 하는 중인데 이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

임아현 이사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에서
청년 공동체를 만들고
청년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슈화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제 청년들이 주거에서 잘 지내기 위해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시스템도 중요.
- 단순히 주거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 자신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가진 문제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하여 기관이나 청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디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워크시트 내용

심은정 부장
한국가스공사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에서
노후주택 리모델링으로 청년공간 지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가스공사는 청년주거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추진 중.
- 첫 번째 방안 : 동구청과 협업중인 행복둥지사업을 활용한 방안.

동구의 노후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3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기존 행복둥지사업을 청년주거와 연관시켜, 그 중 한 가옥을 청년공유주거실험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한 지연, 노후 가옥 발굴의 어려움, 가구 소유주의 변심 등의 문제를 통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됨.

- 두 번째 방안 : 대구도시공사에서 유휴 공간을 제공하면 한국가스공사가 리모델링하여 주거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강은경 대표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위해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에서
공모사업•청년주거 리빙랩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기관은 기업, 지자체, 민간을 연결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자함.
- 실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업을 알리고 나아가 청년들과 연결하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자유토론 내용요약

제안 김요한 과장
대구시 청년정책과

• 강은경 선생님께서 리빙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대구에도 다양한 리빙랩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물리적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청년 중심의 주거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실험 가능하다고 생각.

제안 조득환 박사
대구경북연구원

• 강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음.

답변 강은경 대표
더컴퍼니씨협동조합

• 현재까지의 청년주거문제를 보면 청년들의 욕구, 필요 등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차원에서의 고민이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
• 청년들에게 단순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보다는 청년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왜 청년들이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대한 논의들이 오가야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제안 조수룡
대구거주 청년

• 청년의 자발적 독립의지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독립하는 청년들이 많음.
• 따라서 청년의 자발적 독립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독립과 관련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03 의제 실행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주거 협업테이블 1차

개요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10:00	
	장소 : 대구도시공사 (대구 북구 침산로 73)	
참여자 : 7명	대구도시공사	김진희 부사장
		황병용 실장
		조각래 과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윤종화 전국운영위원장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안지혜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청년주거 문제 관련 해결 방향

- 매입임대주택 현황(기준, 공가율 등)
- 청년주거 관련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방향성이 필요
- 청년주거와 청년 커뮤니티 형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대안 제시

도시공사 소유의 건물 2곳 추천

- 산격동 위치한 원룸빌라 건물 관련 제안
  - 각 층마다 1호실씩 공용공간으로 세팅하여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상인동 임대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 지하 공간(전 지하슈퍼) 관련 제안
  - 청년들이 지역문제해결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청년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로써 활용 가능

미래에 도래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

- 청년주거복지 관련 통합 서비스
  - 청년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협력하여 청년주거복지 통합 서비스를 구축, 청년주거 관련 상담,커뮤니티,사무공간의 복합공간을 제공
- 새로운 가구형태, 주거형태에 대한 선제적 대안 구상의 필요
  - 점차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선행적인 표본모델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듯.

향촌동 건물에 관한 제안

- 대구시 소유(대구도시공사 재정지원)의 향촌동 건물을 사회혁신관련 공간 활용에 관한 제안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주거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11:0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참여자 : 4명

도농공간활성관리소(어반스캐닝) 김한필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현재 의제 사업내용 공유**

- 현재 대구도시공사는 최종적 검토 단계 : 진행되면 의제 새로 만들어야 함.
- 현재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이랑 소통 중이며, 담당자인 곽무영 팀장과 실무협의 필요.
- 10월내로 대구도시공사와 협약식 진행할 계획

안건2. **신규의제(커먼즈_상인동, 산격동 공간) 사업 추진 논의**

- 진행방향 : '커먼즈' (사용보다는 소유의 개념, '공동체가 소유한다' = '공유')
- 상인동 공간 '마을 커먼즈' 공간으로 활용 계획
  - 상인동 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예정(청년만 쓰기는 힘든 공간)
- 산격동 공간 '청년 커먼즈' 공간으로 활용 계획
  - 18실 중 1실은 공유공간으로 사용할 계획(국토부와 협의 중)
    ex) 공유주방, 공유서재 등
  - 임대료는 저렴하게 받고, 청년들에게 복지의 개념이 아닌 '해방구'가 될 수 있는 공간 제공
  - 사회의 다양한 청년들 입주 가능
    : 미혼모, 시설을 나온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청년 입주 가능
- 예산관련 논의 : 공사비용 40~60% 절감 가능
- 산격동 건물 18실 중 기존 입주한 3실
  - 기존 입주자들 설득하고, 일단은 남은 15실에 대한 계약 진행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주거 협업테이블 3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14:0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참여자 : 5명

대구도시공사	조각래 과장
한국가스공사	한가영 대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매니저
	유은정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현재 의제 사업내용 공유

- 현재 대구도시공사는 최종적 검토 단계 : 진행되면 의제 새로 만들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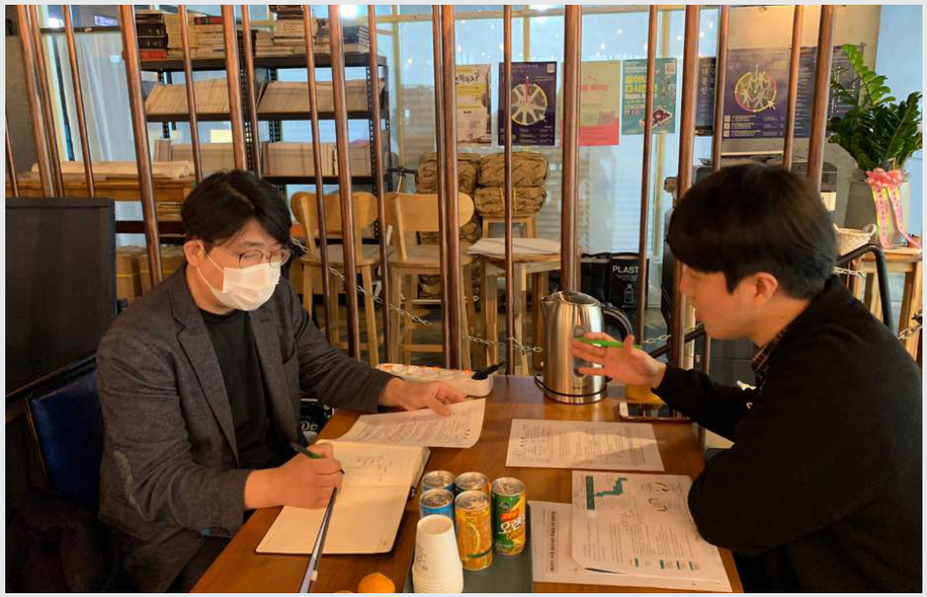
안건2. 의제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안 및 자원 연계 현황 검토

- 의제명 변경 : 산격동 공간 의제 실행이 유보되면서 '주거'보다 '창업'에 초점
  - 행정안전부, 대구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의제명 변경 가능
  - 다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추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내부 보고 필요 있음.
  - '주거' 라는 포인트 살릴 것인지에 대해 각 기관 내부 검토 후 추후 논의 필요
- 예상 일정
  - 2020년 안으로 기탁 및 협약 진행 필요 있음.
  - 12월까지 시공 가능 & 예산만 들어온다면 1월 중으로 오픈식 가능
- 운영 및 사용 주체 (사업계획안)
  - 운영주체 : 김한필 대표
  :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절차 고려할 필요 있음.
  - 사용주체에서 '와락 장터'는 배제 고려
  - 아파트 주민의 특성 고려하여 커뮤니티 공간은 개방보다 대관의 형태로 운영
- 협약 진행 계획 (예정)
  - 진행 방식 : 삼자 협약 (이후 추가되는 파트너 기관들은 시민센터와 협약)
  - 장소 : 혁신 공간 바람 상상홀 (예정)
  - 일정 : 11월 중 (예정)
  - 예상 참석자 :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공공주택사업처장 참석 상의
  한국가스공사 본부장 참석 예정, 대구 시민센터 이사장, 윤종화 대표 중 한 분
  - 협약 내용 : 협약서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공간을 제공하면 시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내부 정리 필요 있음.

추가논의 산격동 공간

-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허영철 대표와 김한필 대표와 산격동 공간 운영 검토
- 공간 공급 기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고려해볼 것.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주거 협업테이블 4차



개요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4:30	
	장소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참여자 : 4명	도농공간활성관리소(어반스캐닝)	김한필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유은정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대구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와의 회의 내용 공유**

- 공유 사항
  - 상인동 공간 관련

- 의제 진행 방식 관련 논의
  - 대구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사)대구시민센터 3자 협약 진행 공간 운영 위탁 주체 검토 : 도농공간활성관리소

- 사업계획안 수정 : 수정 후, 11월 13일 이전까지 각 기관에 공유
  - 커뮤니티 공간 구체적 운영방안 필요, 추진일정 구체화, 사업목적 및 주체의 포커싱 필요

안건2. **의제 진행에 관한 추가 아이디어 논의**

- 수익 창출 활동 관련 논의
  - 주거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통해 수익 발생하는 방안 검토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주거 협업테이블 5차

개요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3:30

장소 : 공감씨즈 사무실

참여자 : 6명

공감씨즈 허영철 대표

도농공간활성관리소(어반스캐닝) 김한필 대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손주연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공유1. 기존(청년주거)의제 진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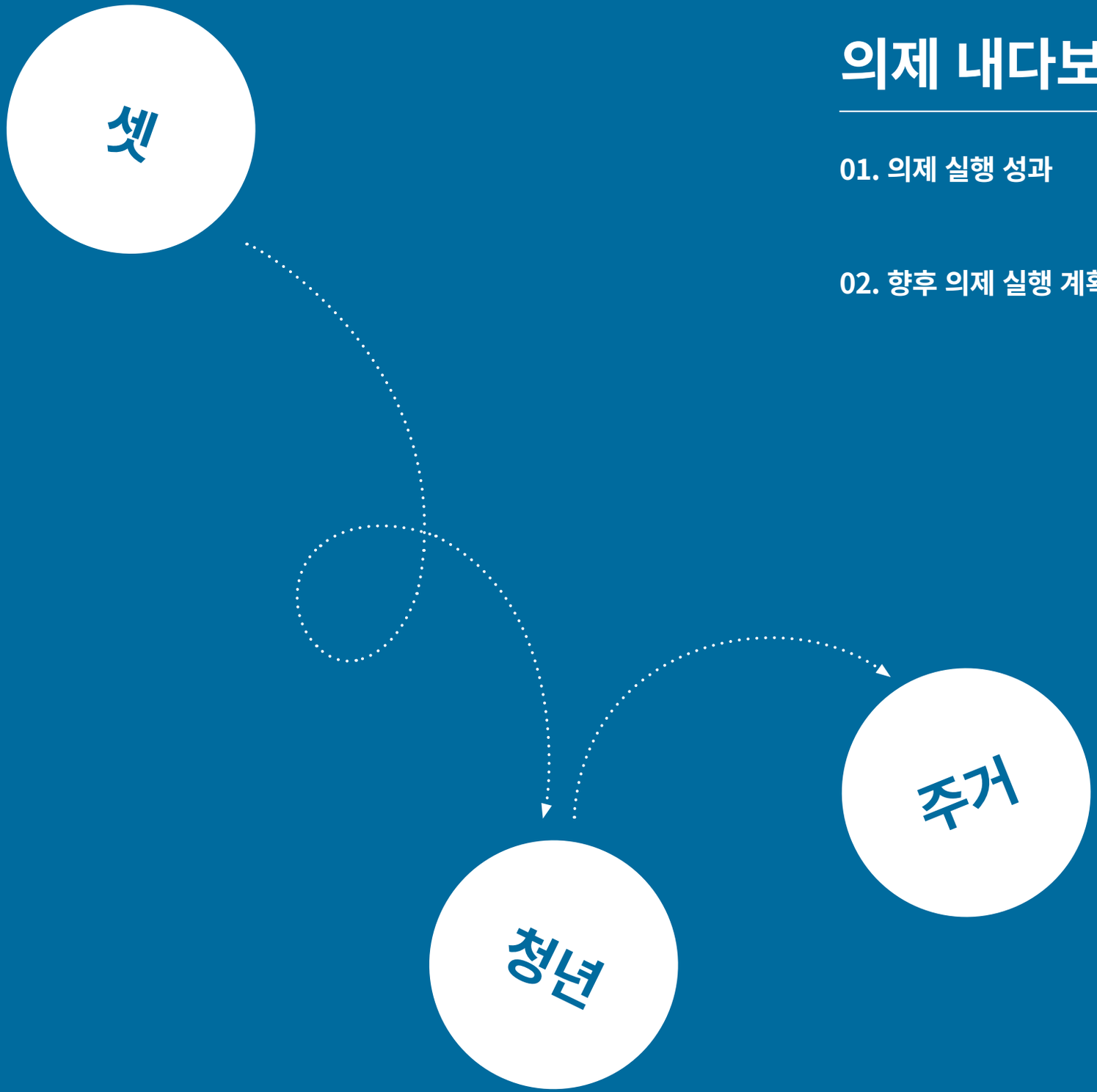
- 청년주거 실행주체
  - 한국가스공사와 진행중 → 방향성 결여로 인한 예산투입 어려움
  - 대구도시공사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간(산격동) 제공
  - 도농공간활성관리소 김한필대표 → 공간 기획 제공
- 청년주거 공간 현황
  - 18채 중 3가구 입주

안건1. 청년주거 의제 방향성 논의

- 운영 및 기획방향
  - 협업주체 구성 논의가 필요함
  - 기존 청년주거에서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주거 제공으로 변경예정
  - 실행 의제 참여 주체들 결합 하면 좋겠음 (예: 아가쏘잉협동조합 미혼모 등)
- 제안
  - 주거복지재단 운영 주체로 제안 해볼 계획

공간 및 운영방안 논의

- 의제 실행 주체 및 역할
  - 도농공간활성관리소 김한필 대표 → 공간 기획
  - 공감씨즈 허영철 공동대표 → 운영 프로그램(콘텐츠)
- 운영 방안 및 방향
  - 청소년 '커먼즈'처럼 운영 방안 고려
  - 관리자 인건비 생각해서 규모를 크게 하면 좋겠음
  - 운영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함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63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65P

01 의제 실행 성과

청년주거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① 지역 청년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대구도시공사) 유휴공간 확보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북9길 6-4 (구)제이공간 (풀옵션 원룸빌라 형태)

② 협업테이블 5회 진행

③ 의제간담회 2회 진행 (청년주거포럼, 사회혁신컨퍼런스)

④ 총 참여자 25명

⑤ 총 참여기관 14곳

협업테이블 및 의제간담회 참석 25 명

의제간담회 진행 2 회

협업테이블 5 회

기관 참여 14 곳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 입주자 모집, 계약 및 입주

2 커뮤니티 빌라 오픈식 및 프로그램 진행

3 사업 자금 확보
- 공간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 확보
: 채널 – 공공기관 또는 행정

4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 공유
- 공간 조성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근 주민과 청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안내 준비

의제 가이드북
청년들의 삶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청년주거

발행일 2021년 04월 22일

발행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획·글·디자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최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